

2022 출판도시 인문학당

사방四方이야기

2030 본격!

내 집·방한풀이,  
자랑대회 설문자료집

# 사방四方 이야기

## 전시 소개

집, 그리고 방은 개인의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는 사적인 공간이자, 시대와 세대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와 느낌을 획득하며 사회적인 공간으로 확장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타인의 방과 방이 가진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타인과 내가 각자의 방에서 어떻게 슬프거나 기쁘지 잠시 멈추어 살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설문조사 소개

이번 전시 참여형 설문조사 <본격! 2030 내 집·방 자랑, 한풀이>를 통해, 우리는 현시대의 20·30세대가 각자의 집과 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간단하게나마 알아보고자 했다. 해당 자료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응답을 모아 엮었다.

## 강연 소개

이것은 방의 이야기이자, 방 안에서 살아가는 네 명의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각기 다른 분야에 종사하면서 방과 공간, 집을 남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네 강연자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집’과 ‘방’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강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출판도시 인문학당 인스타그램 @inmunclub.org\_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밖에 없는 사람, 방 밖에 없는 사람>  
이현호 시인이 말하는 집돌이의 방 이야기  
2022년 4월 30일(토)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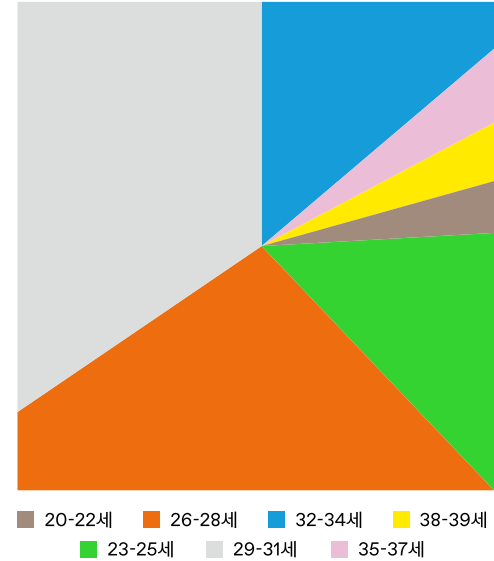
### <집의 기쁨과 슬픔>

공간·라이프스타일 매거진 김윤선 에디터가 들려주는 집과 방 이야기  
2022년 6월 18일(토)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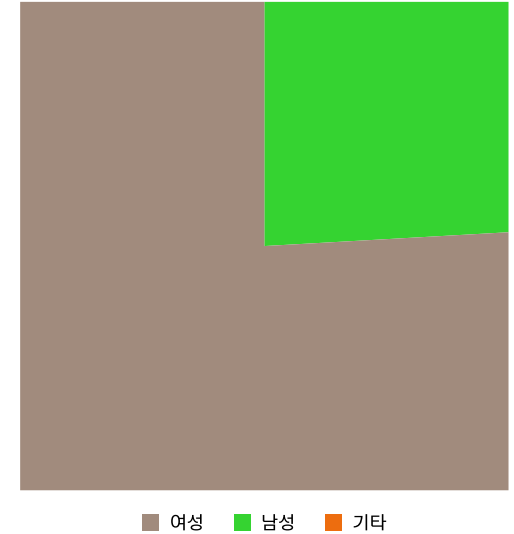
### <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건축 이야기>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사는 사람,  
비유에스건축 박지현, 조성학 소장이 들려주는 이야기  
2022년 7월 9일(토) 13:00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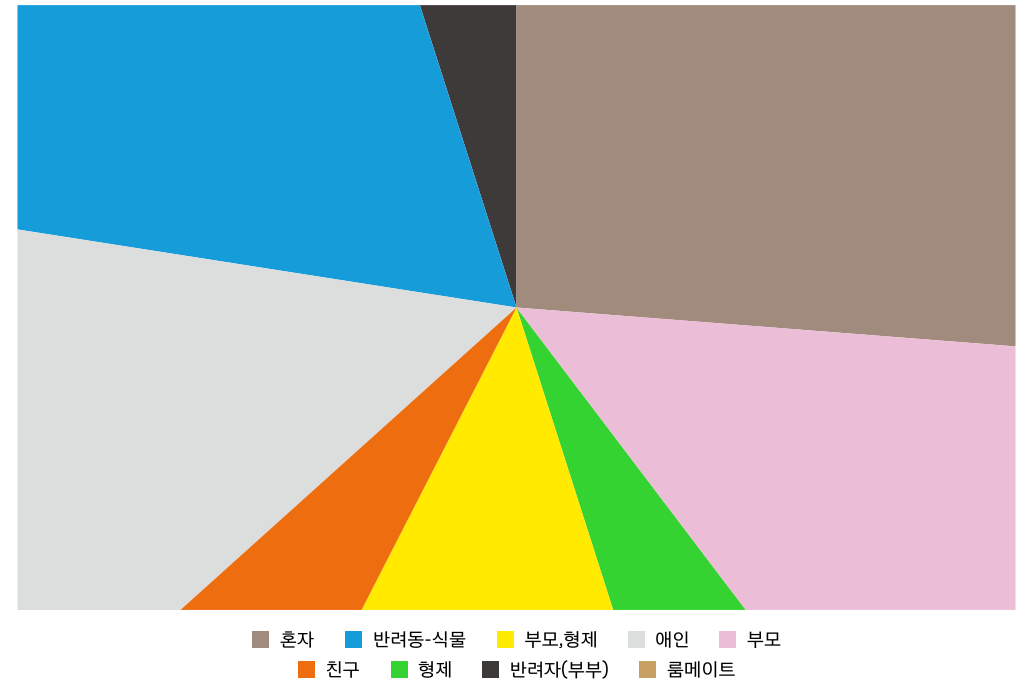


성별 분포



가구원 구성

\*중복 응답 가능



# 질문 1.

## 내가 생각하는 집다운 '집', 방다운 '방'의 정의는?

**그곳에** 사는 모든 구성원의 개인 공간이 보장되고 햇볕이 잘 드는 집.  
햇볕이 잘 들고 개인이 간단한 체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가 확보되는 방.

**무슨** 일이든, 어떤 생각이든 방해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공간.

**그** 어떤 행동을, 생각을 해도 마음이 편안한 곳.

**장박으로** 계절을 느낄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가구가 자리해도 걸음을 옮길 여유가 있는, 바닥과 벽이 습하지 않고 단단한 공간이면서 냉방과 온열이 원활한 곳이 방다운 방이라고 생각해요.

**5성급** 호텔 스위트 룸보다 더 편한 곳.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따뜻함, 찬기가 있는 인간미 넘치는 곳.

**서울에** 있는 10평 이상에 햇빛이 들며 월세가 안 나가는 집. 잠이 잘 오는 방, 생각을 그만할 수 있는 방.

**딱딱딱딱**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들어선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괴상한 목소리로 “어서오너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곳. 내가 생각하는 집다운 집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제한으로 망가져도 괜찮은 곳. 아주 편한 나의 집.

**지내며** 마음이 편안한 장소.

**언제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기에 적당한 환경을 갖춘 공간.

**공동생활공간이** 있으나 구성원 각자의 방이 있어 본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항상** 생각나고 늘 가고 싶은 곳.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여행이나** 다른 집에서 잘 때는 잠 설치고 불편하다가도 돌아왔을 때 꿀잠 자는 집.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편한 집.

**밖에서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놓고 나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공간.

**편안함과** 아늑함, 일 끝내고 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볕.

**마음의** 안식처.

**아늑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혼자 사부작 돌아다니고 가끔은 친구를 부를 수 있는, 적당히 여유가 있는 공간.

**언제나,** 어떤 나도 포근히 품어주는 공간.

**온전한** 나의 안식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 할 수 있는 공간,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집다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된 도배 + 충분한 창문 + 햇볕 + 청결한 화장실.

**편하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곳.

**무조건** 넓을 것. 최소한 7평 이상.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

**안전한** 건축물, 내·외부소음으로부터 안전한 공간,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머물고** 싶은 곳. 생각하면 편안함이 느껴지는 곳.

**마음이** 놓이는 곳.

**힘들 때** 돌아가고 싶어지는 곳.

**침대, 책상, 옷장**이 있는 방.

# 질문 2. 지금 내 집·방 현황은?

전 주인의 무리한 리모델링 때문에 겨울엔 춥고 여름엔 해가 잘 안 들어온다.

계약할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결로투성이. 365일 곰팡내는 보너스.

방이 두 개입니다. 한 방은 크고, 한 방은 작습니다. 고양이네 주로 큰 방에 머물지만, 작은 방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청소하기 딱 좋은 사이즈. 이보다 더 크면 감당 안 되고, 작으면 집은 터진다.

북향 창문을 가져 조금은 컴컴하고, 열 발자국이면 끝나는 작은 집이다. 그 열 발자국 안에 애인도 누웠다 갔고, 친구도 누웠다 갔고, 엄마 아빠도 누웠다 갔다. 아, 맞아. 동생 녀석도. 다들 하나같이 말한다. 이 집, 참 좋아. 포근하고 따스워.

집은 여백의 미가 있는데, 방은 복잡복잡해서 테트리스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취미생활로 가득한 집.

에비신랑과 함께 공냥거리기에 딱 적당한 직사각형의 집.

크고 작은 조명이 곳곳에 있는 방, 기분에 따라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집.

위를 보면 종교인의 십자가처럼 행잉 식물이 걸려있고, 옆을 보면 냉장고 위에 어항과 유목 그리고 식물이 있다. 대략 8평에 북향이지만 언덕에 있으므로 빛이 반사되어 별이 들어온다.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은 의외로 사랑을 만든다!

친구들이 오면 누군가는 신발장에서 자야 한다.

강아지가 있어 공간이 분리된 곳.

1층에는 2개의 방이 있으며 소수가 모여 파티를 할 수 있는 베란다가 있고 2층 계단을 올라가면 커다란 티비가 있어 보드게임을 연결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집과 다른 방에는 여러 운동기구가 있다.

방의 벽지가 푸른색이라 이불이랑 잘 어울린다.

그래도 큰 한 자릿수 집의 세 구역 중, 그래도 큰 하나의 공간.

원룸치고 조금 넓은. 직사각형이고 현관까지 침대-소파-식탁 순으로 나열되어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는 꼭대기 층 작은 원룸.

문을 열면 부엌이 보이는 6~7평 남짓의 작은 방. 큰 테이블과 침대가 있다.

직사각형에 여러 가구와 책으로 뻘뻘하지만, 비교적 충분한 공간과 빛이 있다.

어느 곳에서도 모든 곳이 보이는 작은 방.

평범한 아파트이지만 세 식구가 살기 딱 좋은 크기에 화장실이 두 개라 편해요.

옷 속에 파묻혀있는 작디작은 방.

다면체 모양의 방.

쥘라기공원.

고시원에 살다 사람다운 집으로 이사했는데,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남동-북서로 길게 뻗은 복도. 남동쪽 거실 창으로는 킨텍스 전시장이 보이고, 북동쪽으론 북한산이 보인다. 서울과 파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으면 무려, 남산이 보인다.

산 지 20년 넘은 아파트. 오래됐다고 크게 불편하다거나 나쁘지는 않지만, 겨울이 되면 물이 잘 안 나온다.

있어야 할 것도 있고 없어야 할 것도 있는 곳.

나의 성격이 드러나는 탓에 남들에게 보여줄 때 긴장되는 방.

## 질문 3.

## 집·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

거의 모든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주로 핸드폰을 보면서. 이 집과 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시간으로 소비함. 큰 방에서 휴식, 작은 방에서 재택근무. 방에서는 잠을 자고, 거실에서는 일을 합니다. 꿈을 꾸는 공간.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한 학교이자 쉼터인 곳. 작업하거나, 작업을 보거나. 최근까지는 집안에서 밤을 낮처럼 살고, 낮을 밤처럼 지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아주 바빴다. 청소도 하고 영화도 보고 요리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일도 하고. 최근에는 출근할 곳이 생겨서 들어가 잠만 자고 나온다. OTT 보기. 골고루 활용하는 편이나 역시 이불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고, 가장 좋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서, 집에 있을 땐 하루 쫓달 집이 있고 아니면 잠만 자고 출근합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놀니다. 잠, 밥, 휴식(?). 요즘은 <여고 추리반> 보면서 밥 먹고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서 잠들기. 내 방에서는 잠만 자고 안방에서 가족들과 모여 함께 이야기한다. 보통 컴퓨터 방에서 대부분 업무를 하고 침실에서는 잠만 잔다. 소소한 행복을 주고받는 공간. 잠을 자고, 밥 먹고 쉬는 곳. 출근을 위한 잠 혹은 안전하게 친구와 놀기. 잠! 밥! 술! 잼! 잠만 자고 출근. 공부하고 작업하고 잠자는 시간을 보냅니다. 잠, 여가, 휴식, 작업, 파티까지 all in one. 침대에서 누워 있거나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한다. 출근 후 휴식 공간. 육아, 가사, 휴식하는 공간. 작업, 운동, 휴식 모든 걸 방에서. 자는 시간 제외하곤, 주로 요리하고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내요. 모든 걸 누워서! 영화를 보고 식물을 가꾸고 남편과 맛있는 것도 먹고 요가도 하고 가끔 책을 본다. 주로 잠을 자고 가끔 일하고 주말에는 쉬면서.

## 질문 4.

## 내 집·방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2가지

**추움, 좁은 방.**

좀 더 넓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작은 방.**

**부족한 옷장.**

**비좁아서** 내 마음대로 꾸미기는커녕, 있는 물건 제대로 정리하기도 어려운 방.

**베란다가 부족**해서 식물을 둘 곳이 없다.

**좁은 크기**와 너무 많은 옷.

거뭇거뭇 **곰팡이 &** 퀴퀴한 **냄새.**

**곰팡이, 녹색 창틀.**

**곰팡이** 생긴 벽지, 움푹 파인 마루.

으름 딱히 없다. **조금 구린 벽지**도 이제 정이 들었다.

**곰팡이**가 핀 벽, **하수구 냄새**가 나는 화장실. 주기적으로 펼쳐지는 곰팡이와의 전쟁.

**곰팡이 곰팡이.**

환기구를 통해 올라오는 **담배 냄새.**

하수구 **냄새.**

벌레!!

**세상의 모든 벌레.**

**벌레와 곰팡이.**

휴대폰에 달려드는 벌레.

여름이 되면 쌀이나 곡류에서 서식하는 **쌀나방**이

득실거린다. 곡식류는 모두 밀봉해 냉장고에 넣어놓았는데,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집주인 할아버지께 sos를 쳤지만,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다. 올해로 이 집에 산지 3년째다.

원래 두 채인 집을 여섯 개의 방으로 나뉜 건물. 한 층에 여섯 명이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방음**이 안 된다. 어떤 집에서 언제 귀가를 하는지, 요즘 자주 듣는 노래는 어떤 곡인지, 화장실에서 어떤 유튜브를 보는지, 설거지를 하는지, 애인이 언제 방문하는지(?) 등등 적나라한 생활 소음이 아주 잘 들린다.

집을 고를 때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했다. 1) 남향 2) 옥상. 그리고 **이 집은 북향이고 옥상이 없어!**

**좋지 않은 경치.**

침대와 상당히 먼 콘센트, 겨울이 되면 **물이 잘 안 나오는** 샤워실.

주먹으로 치면 뚫릴 얇은 가벽으로 인한 **소음**, 허술한 주방.

중구난방 벽지, **벽 갈라지는 소리.**

날파리, 가족이 남기고 간 **코딱지(욕!).**

**머리카락.**

분리수거 쓰레기.

쌓이는 **쓰레기.**

남자친구의 **각질** 필기구, 바닥의 **머리카락.**

**정리** 안 하는 나 자신.

**옛날**에 쓰던 **일기장**, **옛날**에 쓰던 **독서장.**

## 질문 5.

아파트라서 모든 집의 소리가 다 울린다. 애기들 뛰는 소리와 누군가 크게 노래 부르는 소리, 새벽에 시끄럽게 게임 하는 소리까지 전부 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랫집 말소리가 다 들리는 층간소음. 아이의 쿵쿵거림에 달려온 아랫집... 늘 조심하지만 어려운 문제여요. 옆집에 친구가 사는 데 엄마에게 혼나는 소리를 친구가 다 들은 일. 층간소음. 방음이 너무 안 돼서 듣고 싶지 않은 소리까지 듣게 되는 게 싫었다. 방음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새벽에 자주 친구들 데리고와서 고성방가하던 개념 안드로메다 옆집. 층간소음 때문에 단소로 천장 뚫을 뻔한 적 있어요. 늦은 밤 옆집의 술 파티. 그간 별말씀 없던 아래층 이웃이 술에 취해 올라오셨다. 시끄럽다며. 술기운 없이 그냥 오셨어도 다 알았을텐데, 그랬음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시끄러워서 아랫집에서 힘들어하세요. 죄송합니다. 탐침인데 발뒤꿈치 층간소음이 간혹 들릴 때마다 무섭다(아래층인 것 같지만).

기침이 심해서 밤새 잠을 못 이룬 며칠이 있었다. 얼마 뒤, 침대 위치를 바꾸려고 침대를 살짝 옮겼는데, 그옆에 짝 피어있는 곰팡이. 벽지를 싹 다 뜯어냈고 지금도 벽지가 뜯긴 채로 생활하고 있다. 여름에 곰팡이 발생.

한겨울에 보일러 고장으로 온수가 3일간 나오지 않아 물을 끓여 샤워해야 했다.

마스크 쓰고 언덕 오르기. 조금 뻑세지만 유산소 운동이라 생각하고 있다.

친구의 생일이었다. 아주 좁은 부엌에서 바빠 움직였고, 오래 끓인 미역국이 정말 맛있는 미역국이기에, 전날부터 끓여뒀 아주 맛있는 미역국을 잠시 빼놓고는 육회를 무치고 있었다. 육회를 널 접시를 꺼내다 그만... 미역국 냄비를 바닥에 떨어버렸다. 순간 얼어버렸고, 바닥에 떨어진 미역 한 줄이라도 입에 넣고 말겠다는 한 서린 마음을 소주와 육회로 애써 달랬다. 2년 전 일인데, 질문을 보자마자 바닥에 옆질러진 미역국이 눈앞에 그려지는 걸 보니 아직 괜찮지 않은 것 같다. 참고로 우리 집 부엌은 현관과 이어져 있고 한 평 남짓한 공간이다. 나중에 보니 신발에도 미역국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벌레 출연.

## 내 집·방에서 겪었던 속상한 일?

엘리베이터를 카드를 찍거나 비밀번호를 쳐야만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경비아저씨가 엘리베이터 비번을 입주민들한테 알려줬는데, 집주인 딸이 알게 되어 해고당한 일이 있어 화났었음. 카드를 집에 두고 외출 하면 걸어서 올라가야 함(맨 꼭대기 층).

아래층에서 물이 새서 우리 가족이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자동차 배기음, 왜 단속 안 하나! 새벽에 자꾸 굉장한 배기음에 깨는 것은 나쁜인가! 창문 너머로 들리는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

이사 오고 작은 방에 보일러가 켜지지 않았을 때의 사기 당한 기분. 주인이 수리를 안 해줬을 땐 금액적 부담에 속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집 잘 안 고쳐주는 집주인.

집안일 분담. 청소를 해도 해도 끝이 없음.

혼자서 블라인드를 교체할 수 없었을 때.

방이 좁아서 책을 더 이상 두지 못하는 것.

## 질문 6.

## 내 집·방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

혼자 있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내 기분을 궁금해 해주는 가족들이 있는 집.

전세지만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마련한 보증자리. 예산이 부족해 집에 있는 모든 가구를 DIY로 꾸렸는데, 남편과 '똥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즐거웠다.

텐테이블을 들고 게임 <젤다의 전설>을 할 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샤워를 마친 뒤 퀸 사이즈 침대에 누워서 좋아하는 영상을 볼 때.

청소하지 않아도 잔소리하는 사람 없다. 둘이 같이 더럽히니 서로 못 본 척 넘어간다. 내가 하고 싶을 때 청소한다. 엄마에게 벗어난 나는 자유인이다.

애인과 보냈을 때(과거형).

이사한 당일 밤. 미치도록 행복했다. 5평 남짓의 방이 50평처럼 느껴졌다.

집에서 강아지가 맞이해줄 때.

포근한 내 귀여운 이불(애칭)에서 널브러져 있을 때 너무 즐거워요.

아무도 집에 없고, 강아지들이랑만 누워서 하루 정일 시간을 보낼 때.

남편이랑 보내는 시간.

혼자 음악 크게 틀고 운동할 때.

집에 혼자 누워서 휴대폰 할 때.

평일에 하루 종일 쉬는 데 집에 나 말고 아무도 없을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난 후 안락한 느낌이 들었을때. 너무 좋았다.

오늘 컴활 1급 실기 합격 결과 조회함.

자도 자도 눈치 안 보일 때.

친구를 불러 함께 안전하고 편하고 느긋하게 놀 수 있을 때.

지인들을 초대하여 즐기는 홈 파티(파티 1년 차. 비로소 손님 접대와 뒷정리도 능숙해졌다).

먹고 싶은 배달음식 시켜 먹을 때.

이사 초반, 주변 맛집에서 사 온 맛있는 빵을 먹었을때.

자고 일어났는데 더 잘 수 있을 때.

일어났는데 지각할 위기일 때.

예쁜 조명 틀고 여유롭게 쉬며 이곳이 내 집이라고 느꼈을 때.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쭈라기 공원을 만들어 봤을 때.

방 한 칸 안에서 혼자 헤드셋 쓰고 영화 볼 때.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 멍때리는 순간!

친구들과 밤새 놀 때.

해지면 짠 하고 켜지고, 자정이면 스프룩 꺼지는 스마트전구.

집값의 천분의 일도 안 하는 만 원짜리 스마트전구가 '열일'하는 것을 볼 때.

주말에 방에서 폭 자고 일어날 때의 고요함과 개운함.

### 질문 7.

## 집·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

### 질문 8.

## 이유는?

#### 지갑, 통장, 보석, 금

- 돈이 있어야 한다... 추억은 돈 주고 살 수 없지만, 나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면 다른 집을 구해야 하고, 그럴 돈이 필요하기 때문.

- 금은 계속 가격이 오른다.

#### 핸드폰

-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결제도 가능하다.

- 휴대폰으로 119든 112든 부모님이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 내 지인들의 연락처가 모두 있어요.

#### (가능하다면) 책이 꽂힌 책장 통째로

못 읽은 책투성이다.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상황은 아닐 텐데, 책이 그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서랍장

나를 위해 누군가가 선물해준 물건이자, 나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놓아둘 수 있는 적절한 공간.

#### 고양이

4년을 함께 산 고양이는 물건은 아니어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 반려식물

최근 선물 받은 cd 플레이어와 고민했지만, '반려'식물은 '반려'니까. 302호에 살아 숨 쉬는 건 나랑 그 친구뿐인데, 내가 아니면 물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 컴퓨터, 노트북

- 백업 못 한 파일들이 있어요.
- 지금까지의 모든 사진, 문서 등이 있어서.
- 대학 생활의 전부가 담겨있어서.
- 랩톱만 있음 어디든 갈 수 있어.

#### 외장 하드

나의 모든 기록이 있으니까.

#### 가족 앨범

없어지면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 프라이탁 가방

지금 다니는 회사에 첫 출근하는 기념으로 프라이탁 공식 매장에서 샀다.

#### 플라로이드

정말 갖고싶었던 귀여운 물건.

#### 인형들

어른도 없으면 잠 못 자는 애착 인형 세 개쯤 있지요? 아일랜드와 페루에서 운명처럼 만나 함께 한국으로 온 램비와 알삼이, 오래전 선물 받아 잠잘 때 늘 함께한 미사일.

\*알삼이: 알원이부터 알육이까지 여섯 친구를 한국에 데려왔지만 모두 친구들에게 나눠주고(빼앗긴 것은 아닙니다) 남겨진 셋째 알파카 그 이상의 보드라운을 찾을 수 없었다.

#### 밀대

탈출을 할 만한 상황이면 공격에 대비할 도구가 필요할 듯해서요.

#### 다 두고 온다

쿨한 척이다!

#### 노트

내 꿈들이 담겨있는 노트이기 때문.

#### 편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 남편(요가 매트)

이 집은 남편과 나의 안식처고, 함께 만든 곳이다. 남편만 가지고 나가면 새로운 곳도 안식처가 된다(아차 물건이지. 그렇다면 5년째 등고등락하는 요가 매트. 힘을 때마다 이 매트 위에서 요가를 한다. 2주 이상 장기 여행 갈 땐 꼭 가져간다).

주최: 출판도시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도시문화재단

출판도시인문학당

@pajubookcity

@immclub.org